

# 광주 남구가족센터, 지역공동체 공간 자리매김

이용자 7만명 돌파…명절 체험 등 프로그램 ‘다채’

수요자 맞춰 서비스 제공…“주민들에게 행복 전파”

광주 남구 육아와 돌봄 공간인 남구 가족센터 연간 이용자가 7만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공공기관 중심의 지역 돌봄체계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4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남구 가족센터를 다녀간 방문객은 7만925명(일반 주민 4만78명·다문화 가족 3만847명)으로 집계됐다.

남구가족센터가 큰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유는 핵가족화 시대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공동육아와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세상을 여는데 밑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곳에서는 가족관계와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까지 4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수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분야 프로그램은 주민 3만2455명이 이용할 정도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다.

이곳 센터에서는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와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다문화 인식 개선을 목표로 공동육아 나눔터와 가족 축제, 고향 방문, 명절 체험, 아동·청소년 클라이밍 강습 등 18개 세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데 앞장섰다.

이와 함께 가족 구성원의 부재와 상황적 위기 등으로 가족 기능이 약화된 가구 구성원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가족 돌봄 분야 프로그램 이용자만 연간 1만 9142명으로 조사됐다. 해당 분야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그동안 온 가족 보듬과 1인 가구 솔로 투게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한부모가족 가사 서비스 등 7가지 세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가족 사랑을 키웠다.



광주 남구 육아와 돌봄 공간인 남구 가족센터 연간 이용자가 7만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공공기관 중심의 지역 돌봄체계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사진은 남구가족센터 프로그램 가족사랑의 날 모습.

이외에도 가족 특성에 따른 고층 상담과 초기 정착 등 11가지 가족생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가족관계 개선 차원에서 부모·부부 역할 개선, 이주언어 교육 지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서

비스가 제공됐다. 가족생활 분야와 가족관계 분야 프로그램 이용자는 각각 1만3327명과 4240명이었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 가족센터는 가족 건강성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그동안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했다”며 “앞으로 다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원하는 복지 파트너로서 관내 주민 모두에게 행복을 전하는 가족센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기업 인사팀장이 기록한 청춘의 시간

임상택 에세이 ‘청춘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출간

현직 도시가사사 인사(HR) 팀장으로 조직과 사람을 가까이서 지켜온 임상택 작가(아호 무룡·舞龍)가 청춘의 시간을 다룬 에세이 ‘청춘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를 펴냈다.

임 작가는 2002년 LG그룹 인사 부서 인사 실무와 조직문화 현장을 두루 거쳐 왔다. 현재는 해양에너지 인사팀장 겸 남부권 인사·노무 경영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조직과 사람, 그리고 일터 속 청

춘의 고민을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다. 이번 책은 그가 신입사원과 청년 인턴, 입사 지원자들과 나뉘는 대화에서 출발했다. ‘시작과 흔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건네는 기록이다.

책은 ‘성과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먼저’라는 문장으로 문을 연다. 성취와 속도가 강조되는 시대지만, 저자는 조직 안에서 무엇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한다. 조직이라는 바다를 건



너는 뱀을 비롯해 공과관 소통의 태도, 관계의 온도, 승진과 인정의 의미, 다름과 연결의 가치 등이 4부에 걸쳐 차분히 담겼다. 조언은 있지만 가르치려 들지 않고, 해답보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머문다.



저자의 이력도 이채롭다. 취미로 정악 대금을 연주하며 호흡과 여백 속에서 문장을 다듬어왔고, 와인 소믈리에 자격을 갖춰 “한 잔에 맺히는 향과 여운을 기록하며 문장을 빚는다”고 말한다. 일터의 언어와 예술적 감각이 책 전반에 은근히 스며 있다.

임 작가는 청춘을 미완의 상태로 규정하지 않는다. “청춘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피어가는 중”이라는 시선은 위로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버티는 현실적인 용기와 내일을 향한 조용한 실험을 독자에게 권한다. 그는 “청춘에게는 끝을 찌는 마침표보다 숨을 고를 심호가 필요하다”며 “이 책이 지친 하루 끝에 다시 펴보고 싶은 인생의 작은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정성만 ㈜픽스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광양 백운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정성만 ㈜픽스 회장, 장학금 1000만원 기탁

지역 보육·인재 육성 관심

정성만 ㈜픽스 회장이 광양 백운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장학금 중 500만원은 보호자가 없고 있는 외국 국적 학생이 서울소재 대학교에 진학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정성만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백운장학회에 기탁했다. 또 2017년부터 매년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 보육과 인재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있다.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에 위치한 ㈜픽스는 지난 1994년부터 파형강관, 강판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호주, 중국, 러시아 등 10여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정성만 회장은 “지역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며 “학생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속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kjin@gwangnam.co.kr

광주 119특수대응단장에 황인 소방정

“시민 안심·특수사고 대응에 최선을”

광주시는 ‘제10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황인 소방정(사진)이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 원도 출생인 황인 신임 단장은 1995년 소방공무원으로 입문해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북부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

황 단장은 소방행정 전반에 걸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처리 능력을 발휘하고, 직원들을 배려하며, 솔선수범하는 성품으로 선·후배 소방공무원에게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황 단장은 취임 첫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무등산국립공원 새해맞이배치 현장에서 소방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집무를 시작했다.

황인 광주119특수대응단장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특수사고 대응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에 조종훈 소방정

“열정 어린 체험교육으로 안전 소통”

광주시는 제4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으로 조종훈 소방정(사진)이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조종훈 신임 관장은 지난 1993년 소방공무원에 입문해 다양한 재난 현장과 행정 분야를 두루 거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119특수구조단 항공구조구급대장,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북부소방서 재난대응과장, 광주소방안전본부 구급팀장, 구조팀장 등을 역임했다.

조 관장은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과 체계적인 행정 수행 능력을 겸비



한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소방행정 실천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했다. 합리적인 업무 추진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화합의 조직문화를 이끌어온 인물로 꼽힌다.

조종훈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은 “열정 어린 체험교육을 통해 타협 없이 찾아오는 위험 속에서도 시민에게 안전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제공”

강호남 지리산전남사무소장 부임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지난 1일 신임 소장으로 강호남 전 지리산생태탐방원장(56)이 부임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소장은 2001년 국립공원공단에 입사해 무등산, 지리산전북, 본사 성과관리실, 생태복원부와 야생생물보전원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강 소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이행과 자연·문화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유관단체, 사찰, 환경단체 등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강 소장은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지리산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상에 지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 속에서 여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글로벌광주방송,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표창

개국 후 처음…문정 차장 수상



글로벌광주방송(구 광주영어방송)은 조직혁신과 방송 구조 개편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개국 이래 처음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기관 명칭 변경과 조직 혁신, 방송 운영 체계 개편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경영기획팀 문정 차장이 수상했으며, 글로벌광주방송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 대외적으로 인정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글로벌광주방송은 기존 'GFN 광주영어방송'에서 'GGN 글로벌광주방송'으로 방송사명을 변경해 다국어·다문화 종합 미디어채널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영어 중심 편성에서 벗어나 영어 70%, 다국어 30%로 방송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다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였다.

해당 개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과 정관 개정을 거쳐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 제도적 안정성과 공적 책임성도 함께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정 차장은 “이번 표창을 계기로 광주·전남 지역 외국어 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광주방송은 앞으로도 조직 혁신과 다국어 콘텐츠 확대를 통해 지역 기반 공공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 동구새마을회는 최근 병오년 동구민의 안녕과 희망찬 새 출발을 기원하는 ‘2026년 너릿재 해맞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동구새마을회, 병오년 ‘너릿재 해맞이 축제’

등산객 2000명에 떡국 나눔

광주 동구새마을회는 최근 병오년 동구민의 안녕과 희망찬 새 출발을 기원하는 ‘2026년 너릿재 해맞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너릿재 해맞이 행사’의 하나로,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 효지산악회, (사)자비신행회와 함께 했다.

광주 동구와 광주는행의 후원으로 이뤄진 행사는 활기찬 난타 공연과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떡담 나누기’, 새해 희망을 전하는 ‘행운쿠키 나눔’, 새해 염원을 담은 ‘소원 향초 켜기’ 등 다채로운 프로

그램도 진행됐다.

특히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너릿재를 찾은 등산객 2000여명에게 떡국과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며 이웃과의 저를 나눴다.

임택 동구청장은 “구민 여러분의 꿈과 바람이 꽃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대영 광주 동구새마을회 회장은 “병오년 봄은 말처럼 지역민 모두가 힘차게 도약해 원하는 목표를 모두가 이루길 바란다”며 “동구새마을회 또한 앞으로도 지역민과의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